

# 에콰도르의 달러공용화 추진 현황과 전망

李漢九 · 국별조사실 선임조사역

I. 머리말  
II. 달러공용화 추진배경과 진행과정

III. 달러공용화 도입 이후의 경제전망과 과제  
IV. 맺음말

## I. 머리말

2000년 1월 에콰도르 정부는 미 달러貨를 자국의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달러공용화(dollarization)<sup>1)</sup>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에콰도르는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스스로 자국의 통화주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에콰도르는 수크레(sucre)貨가 1999년 2월 변동환율제가 도입된 이후 급락세를 거듭하고 있었고, 세계 최초로 브래디 본드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국가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1999년 경제성장률은 -7.3%를 기록하였고, 2000년 들어서도 첫 주에만 수크레貨가 미 달러貨에 대해 약

25%나 하락하는 등 경제위기는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1999년 3월에 단행된 정기예금 동결조치의 해제일인 2000년 3월이 다가옴에 따라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우아드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의 최후 수단으로 달러공용화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 소요사태가 발생하면서 마우아드는 대통령직에서 축출되었고, 부통령인 노보아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노보아 신임 대통령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달러공용화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의회를 설득하여 달러공용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00년 4월 1일

1) 달러공용화는 주권국가의 상징인 자국통화를 포기하고 미 달러貨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여 모든 거래에 달러가 통용되도록 하는 것임. 그 유형으로는 공식적, 비공식적, 평행적 달러공용화 등 3가지가 있음. '공식적 달러공용화'는 미 달러貨를 자국내 유일한 법정통화로 인정하여 모든 거래에 달러가 통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비공식적 달러공용화'는 자국통화 이외에 미 달러貨가 국내에서 가치척도나 거래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뜻함. '평행적 달러공용화'는 자국통화 이외에 미 달러貨를 또 하나의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경우를 뜻함.

예정대로 미 달러貨는 에콰도르의 새로운 법정통화가 되었다.

달러공용화 도입 이후 에콰도르 경제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채권단과의 리스케줄링 협상 타결로 외채상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되었으며,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산업이 활기를 보이면서 2001년에는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외견상 달러공용화가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중앙은행의 기능 재정립, 금융감독기능 강화, 대출채권 재조정 등 달러공용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난제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는 이 제도의 불가역성(irreversibility)으로 인해 사실상 영원히 통화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즉, 발권(發券)기능이 없어진 중앙은행은 재량적 통화신용정책 기능도 상실한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국내외 차입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환율의 완충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국제 자금흐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충격에 더욱 취약해지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감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본고에서는 에콰도르의 달러공용화 추진배경과 진행과정 등을 분석해보고, 달러공용화 이후의 경제전망과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Ⅱ. 달러공용화의 추진배경과 진행과정

###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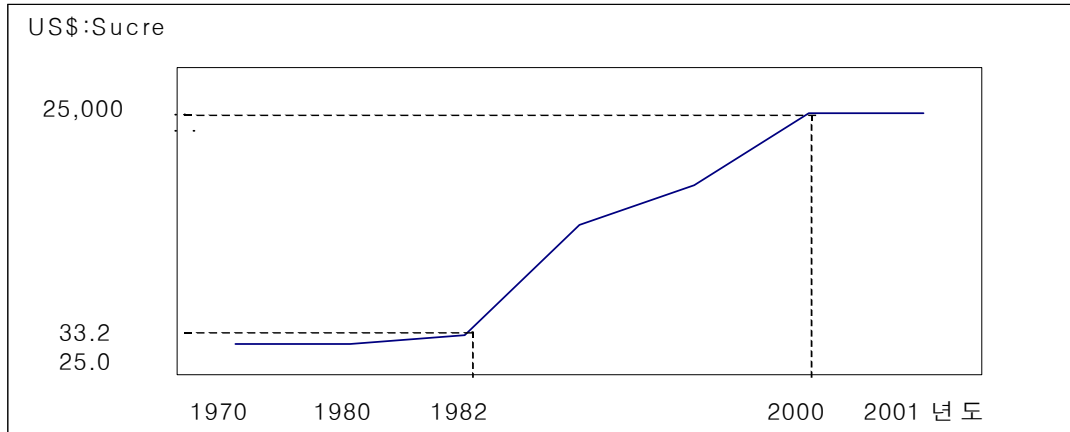
에콰도르는 1999년에 발생한 총체적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달러공용화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달러공용화는 통화위기의 근원을 제거하는 효과 외에, 에콰도르 경제 구조를 달러 경제권에 맞추는 개혁도 요구하고 있었다. 1999년 경제위기 당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에콰도르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통화주권이라는 명분을 포기하고 항구적인 경제안정이라는 실리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첫째, 에콰도르는 석유, 커피, 새우 등 1차 산업에 지나치게 특화된 경제구조로 인해 가뭄,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에콰도르는 중남미 10대 경제국 중 가장 무거운 외채부담을 안고 있었다. 1970년대부터 외채가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말에는 공적외채 잔액이 GDP의 약 2/3 수준을 넘어섰으며, GDP 축소와 대폭적인 환율인상으로 인해 1999년 말에는 GDP대비 공적외채 비율이 90%를 넘어서게 되었다.

셋째, 취약한 경제구조와 과중한 외채상환 부담, 잦은 환율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 에콰도르 경제에서는 비공식적인 달러공용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 같은 여건이 역설적으로 2000년 달러공용화의 도입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수크레貨 환율의 변동 추이



자료: IMF, IFS Yearbook 2001.

넷째, 에콰도르의 금융시스템은 1990년대 초부터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개방화되었다. 그러나 감독기능이 매우 취약했던 금융권은 농업과 석유산업 등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편중, 과도한 역외영업, 금리경쟁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금융기관들과 감독기관 모두 1998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다섯째, 에콰도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인구규모에도 불구하고 해안 지역과 고원 지역간의 지역적 갈등, 인종과 이념에 따른 갈등 등 사회적 분열이 심하여, 어느 정당도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없었고 중앙정부와 대통령의 권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은 경제개혁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 2. 달러공용화의 진행과정

### 가. 비공식적 달러공용화의 진행

금융부문의 잦은 위기로 수크레貨의 구매력이 불안정해지자 국민들은 안정적인 통화단위를 원하게 되었다. 경제발전에 따라 계약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안정적 구매력을 가진 통화단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여기에서 세계화의 진전으로 비거주자와의 미 달러貨 거래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환경변화로 인해 에콰도르 경제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비공식적 달러공용화가 진행되었다.

비공식적 달러공용화는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을 겪은 국가에서 빠르게 진전되었는데, 이는 경험적으로 달러공용화를 역행하는 경우 득보다 실이 컸기 때문이다.<sup>2)</sup>

초기에 서서히 진행되던 에콰도르의 비공식적 달러공용화는 1990년대 중반 수크

2) 볼리비아는 1982년에 정부가 은행의 달러계정을 현지화로 전환시키려 하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고 환율불안이 초래됨으로써 초(超)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음.

레貨가 큰 폭으로 평가절하되면서 빠르게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비공식적 달러공용화의 환경에서 수크레貨의 평가절하로 인해 미 달러貨 가치의 급격한 상승은 물론 물가상승 압력도 매우 크고 신속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물가와 환율의 상승은 미래의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평가 절하에도 영향을 미쳐 달러공용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 나. 1998~99년의 경제위기

1997년 후반과 1998년 초 에콰도르 경제는 엘니노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유가 하락의 영향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러시아 및 브라질로 이어지는 개도국 경제위기의 충격까지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에콰도르는 석유수출 감소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제한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1998년 초 동국 정부는 환율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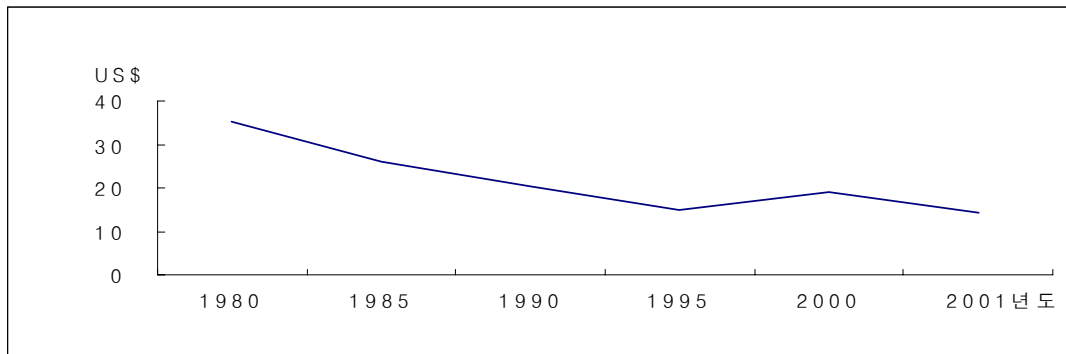
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수입자들은 수크레貨의 추가적 평가절하를 예상하고 오히려 재고확보를 위해 수입을 늘렸다. 그 결과 1998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전년의 GDP 대비 3.6%에서 11%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1998년 하반기로 접어들며 금융위기가 심화<sup>3)</sup>되고 예금인출이 급증하자, 동국 정부는 12월 은행예금에 대해 현금지급을 보장하는 긴급법안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부의 리스크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은행의 신뢰도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정부의 지급보증이 소형은행에는 유효했으나, 재정 부족으로 대형은행에 대한 전액 보증은 곤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의 감소를 막기 위해 1999년 2월 환율제도를 크롤링 페그밴드 시스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후 4주 동안 수크레貨가 30%나 평가절하되고, 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5%에 이르는 초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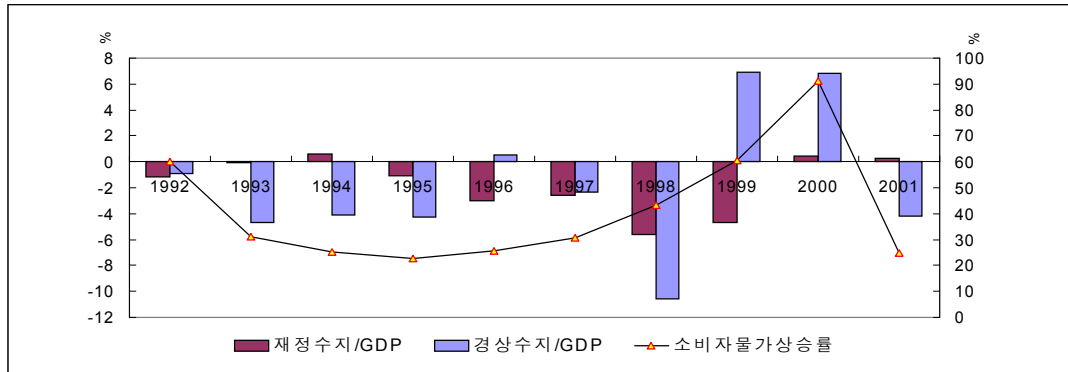
에콰도르산 유가 변동 추이



자료: 에콰도르 경제부.

3) 1998년 3월 소규모 은행인 Solbanco의 파산에 이어, 8월에는 새 정부가 출범한지 1주일만에 동국내 자산기준 제8위의 대형은행인 Banco de Prestamos 파산하였음.

〈그림 3〉 주요 거시경제 불안정성 지표



자료 : IMF, IFS Yearbook 2001.

(超)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3월 중순에는 인플레이션 및 추가적인 은행파산을 막기 위해 1주일간의 은행 휴무와 1년간 예금 인출 동결조치가 발표되었다. 이후 수크레貨의 평가절하와 물가상승은 일시적으로 진정되었으나, 예금인출 동결조치와 함께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중단되는 등 경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붕괴되었다.<sup>4)</sup>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었던 중앙은행은 1998년 12월부터 1999년까지 16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여 파산은행<sup>5)</sup>의 자본을 지원하거나 예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999년 중에는 통화량이 136%나 팽창하였다.

한편, 동국 정부는 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에 IMF, 세계은행, IDB, 안데안개발공사(CAF)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모색하

였다. 이 기관들도 동국의 은행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긴밀히 협조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동국 정부는 1999년 9월 하순 IMF와 대기성차관 의향서에 합의하였으나, IMF가 요구하는 조세개혁 정책에 대한 의회의 반발로 인해 대기성차관 협약 체결에는 실패하였다.<sup>6)</sup>

1999년 8월 하순에는 동국 정부가 브래디 본드에 대한 이자지급을 중단하고 채권자들에게 채무경감 협상을 요청하면서 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채권자들은 크로스 디폴트 조항을 적용, 총 공적외채 130억 달러 중 65억 달러의 외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동국은 브래디 본드와 유로본드 상환을 불이행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sup>7)</sup>

1999년 말이 다가오면서 예금인출 요구

4) 1999년 실질 GDP가 7.3% 감소하고, 1998년 중반부터 1999년 12월 사이에 실업률도 두 배나 증가하였다.

5) 1988년 42개에 달하던 은행 수가 2001년 중반에는 26개로 감소했음.

6) IMF와 동국 정부는 달러공용화 법안이 승인된 후인 2000년 4월 대기성차관 협약을 체결하였음.

7) 동국 정부와 채권단은 채무재조정 협상을 통하여 2000년 8월 달러당 60센트의 비율로 브래디 본드와 유로본드를 신규채권으로 교환하는 데 성공하였음.

가 늘어나고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물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였다. 이에 중앙은행은 긴축정책을 강화하고 은행에 대한 일체의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 및 환율 관리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2001년 1월 첫 주 들어 환율이 수직 하락하자 동국 정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달러공용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결국, 동국의 비공식적으로 확산된 달러공용화가 경제위기를 촉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달러예금이 확산되어 있는 비공식적 달러공용화 시스템에서 수크레貨의 평가절하로 인해 경제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 다. 공식적 달러공용화 추진

에콰도르 정부는 달러공용화를 공식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수크레貨를 미 달러貨로 대체하는 한편, 중앙은행의 일부 기능만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즉, 국내통화는 폐지하되 중앙은행은 보유외환을 활용하여 제한적인 유동성 조절자와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정기에 금의 인출동결 해제 조치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이 이러한 기능을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0년 3월 초 '경제개혁 기본법'으로

불리는 달러공용화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동 법은 미 달러貨를 공식적인 통화단위로 규정하고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으로 수크레貨를 매입토록 하였으며, 공공계약, 세금산정 등 법률적 회계기록을 미 달러貨로 표시하고, 중앙은행이 1달러 미만의 동전을 발행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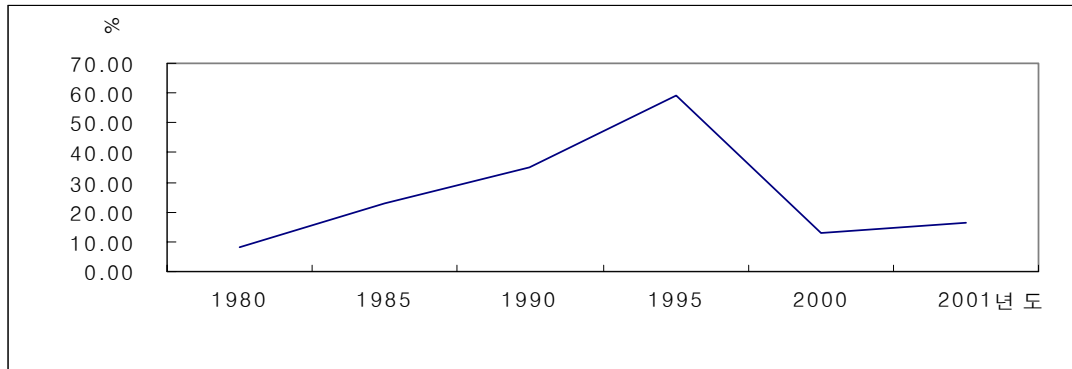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달러공용화에서 중앙은행은 대부분의 화폐발행차익<sup>8)</sup>을 포기해야 한다. 즉, 중앙은행은 보유외환의 이자로부터 일종의 화폐발행차익을 향유하지만, 그 차익은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부분만큼 상쇄된다. 또한, 달러공용화 실시 이후 자기자본적합률의 원칙과 상업은행 회계의 국제적 기준(바젤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이전에 비해 더욱 강화된다.

동국 정부는 달러공용화를 실시하며 기존의 수크레貨 및 미 달러貨 금융자산에 대해 한번의 이자율 경감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0년 1월 11일을 전후하여 자산에 대한 금리는 16.82%, 부채에 대한 금리는 9.35%로 낮아졌다. 또한 이자율 상한제도<sup>9)</sup>도 도입되었는데, 그 목적은 은행들이 위험이 큰 고금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금리상한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진입장애 요소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다.

8) 정부가 화폐발행권을 독점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기술적으로는 화폐의 액면가치에서 그 발행비용을 뺀 차액으로 정의됨. 정부가 화폐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화폐증가로 발생한 실물자산의 인플레이션을 민간부문에 전가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인플레이션 세금이라 표현되기도 함.

9) 금리상한은 LIBOR + 위험 스프레드 형식으로 중앙은행이 주기적으로 정하였는데, 통상 금융권 평균대출금리의 1.5배에 상당하도록 하였음.

〈그림 4〉 중앙은행 재할인율 변동 추이



자료: IMF, IFS Yearbook 2001.

또한, 금융기관의 민간채무의 재조정도 허용되었다. 금융권에 대한 채무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인 80만 명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7년 이내의 재조정이 허용되었으며, 채무금액이 5만 달러 이상인 수백 명의 채무자도 대출금 재협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은행의 현금흐름을 해칠 수 있는 거액 대출금에 대한 재조정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동국 정부는 공식적 달러공용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통화 및 금융 시스템 개혁은 물론 통신 및 전력 부문의 민영화, 석유 부문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다방면의 개혁조치도 병행하였다.

### 3. 달러공용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

에콰도르 정부는 달러공용화 추진을 위해 정기에금의 인출동결 해제, 수크레貨의 과도한 평가 절하로 야기된 인플레이션, 자동차 연료·전기·취사용 가스 가격 등 공공요금 조정, 임금 조정 등의 과제를 안

고 있었다.

우선, 공식적 달러공용화 도입 시점에서 에콰도르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2000년 3월 중순 동결에서 해제될 정기에금에 대한 은행의 자금확보 여부였다. 정기에금의 인출이 예정대로 3월 13일 개시되었으나 은행들이 예금주 설득에 성공하여 2000년 중 예금잔액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크게 우려되었던 예금인출 사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2000년 3월 초 IMF, 세계은행, IDB, CAF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동국에 대해 22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발표한 것이 예금주들을 설득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은 효과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예금주들도 달러공용화 실시로 은행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높은 인플레이션도 달러공용화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달러공용화를 추진하면서 대폭 상승한 수크레貨 환율 때문에 미 달러貨에 대한 수크레貨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의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야 했

기 때문이다.

자동차 연료, 취사용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과 임금조정도 달러공용화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이러한 조정은 공공재정, 사회적 분배 등 민감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어 정치적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IMF의 대기성 차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에콰도르 정부는 2000년 4월 자동차 연료 가격과 임금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고 가스요금도 40% 인상하기로 IMF와 약속하였다. 그러나 동국 정부는 국내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IMF와 약속한 대로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못했고, 2001년 1월 추가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나섰으나 대규모 군중시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동국 정부는 취사용 가스 가격 인상을 100%에서 80%로 낮추고, 자동차 연료 가격을 최소한 1년 간 동결하는 등의 조치로 위기를 넘긴 바 있다.

### Ⅲ. 달러공용화 도입 이후의 경제전망과 과제

에콰도르의 물가수준이 안정을 되찾고 각종 공공요금 및 임금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에콰도르는 달러공용화의 효과를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국고에서 자금이 인출되면 달러자금이 중

양은행 금고에서 시장으로 흘러가게 됨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 내의 통화창출도 가능해 질 것이다. 그러나 국내 신용창출은 달러공용화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될 것이다. 재정정책의 선택범위도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감축, 외채 차입, 국내금융시장 채권발행, 정부 차입금의 연체 이외에는 특별한 재정적자 보전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동성 부족에 처한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원능력도 제한될 것이다.

이중통화 시스템이 폐지됨에 따라 안정과 성장의 기본적인 장애요인은 제거되었으나, 경제성장의 장애물은 여전히 남아있다. 동국은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외채상환 부담으로 개발지출이 제한되는 등 과중한 외채가 아직도 동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국가신용등급도 외채관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당 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국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각종 구조개혁도 진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딘 개혁으로 인해 1999년의 위기발생 시점의 현안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가재정은 석유부문 수입에 따라 변동하고, 에너지 등 각종 보조금 지급도 정치적 요인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그러나 동국 정부는 석유수출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안정기금(CEREP)<sup>10)</sup>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가가

10) 공식명칭은 석유수익 안정 및 공공채무 감축기금임. 동 기금은 신규 송유관에서 발생하는 원유매각수익과 투자수익을 재원으로 조성될 예정임. 동국 정부는 동 기금의 20%를 전년도 GDP의 2.5%에 해당될 때까지 매년 특별계정에 예치하여 유가하락에 대비하고, 나머지 80%는 외채를 상환에 충당할 계획임.



높을 때 석유수익 중 일부를 기금에 축적함으로써 유가하락시의 재정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동국 정부는 부가세, 관세, 개인 및 법인소득세 등에 관한 적정한 세율체제를 확정하고,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개혁하는 등 근본적인 조세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동국 정부는 재정안정성 유지를 위해 수입, 지출, 공공채무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정적자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빈곤퇴치, 사회복지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가능케 하는 재정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동국이 재정수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재정의 취약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의 구축도 장기적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예금보증기구(AGD)<sup>11)</sup>가 보유 중인 은행자산을 매각하고, 은행이 적정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생존가능한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상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을 강화하여 은행의 영업여건을 개선하며, 문제점들이 신속히 발견되고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국의 은행들도 대외충격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 외국계 은행과의 적극적인 자본제휴를 통해 동국 기업에 편중된 대출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함으로써 위험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동국의 중앙은행도 새로운 경제체제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유동성 부족을 겪는 상업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시, 중앙은행은 보유자금 여력, 여타은행 및 국고의 자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 IV. 맺음말

에콰도르는 1999~2000년 중 경제위기 심화로 금융당국이 통화공급 및 환율통제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공식적 달러공용화를 선택하였다. 동국 정부는 공식적 달러공용화가 통제 불가능한 이중통화 시스템을 마감하는 최선의 구조개혁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동 제도의 시행 이후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환율위험이 사라지고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경제성장도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동국의 공적채무 부담은 2000년 8월 브래디 본드와 유로 본드를 신채무로 교환함으로써 상당히 감축되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다 자연재해, 국제 상품시세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동국이 공식적 달러공용화를 통해 파나마와 같이 장기적인 경제성과를 거두기 위

11) 1998년 12월의 긴급법안에 따라 동국 최초로 설립된 예금 보증기구로, 동국 최대은행인 Filanbanco 등 여러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였음.

---

해서는 공공 및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 과거 파나마와 미국간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외국계 은행들이 파나마 금융 시스템의 최

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한 사례와 같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국제적 지원의 획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달러 공용화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파나마가 에콰도르에 시사하는 교훈이라 할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1. 김영석, “중남미의 달러공용화 논의와 전망”, 수은조사월보, 수출입은행, 2000.3.
2. 외교통상부, 월간 중남미정보, 각호
3. 한국수출입은행, 수은해외경제, 각호
4. Andrew, Eduardo, 2000. “*Full Dollarization, The Pros and Cons*”, Economic Issues No. 2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5. EIU, Country Profile 2001, Ecuador
6. EIU, Country Report 2002, Ecuador
7. Paul Beckerman, 2001. “*Dollarization and Semi-Dollarization in Ecuador*”, Working paper, World Bank.
8. Pere Gomis 외 2인, 2000. “*Currency Substitution in Latin America: Lessons from the 1990s*”, Working paper, World Bank.
9. <http://www.viewswire.com>